

 2018 

제 1 회 충 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종합)

“우리는 왜 마을로 가는가?”



일시

2018. 2. 23(금), 14~18시

장소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간U
-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 1층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민자치의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천군 마을만들기협의회장 김 애 경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의 지정토론 참가 및 원고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해봐도 할 말이 없다.

각 지역마다 학교가 있어야하고 구멍가게와 작은 시장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과 제철 식재료를 우리지역에서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순환이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상적인 생각이 아닌 마을을 살펴보면, 마을 조직은 잘 갖춰져 있으나 일 할 사람이 없어 일부 사람들이 겸직을 하면서 장기 봉사를 하고 있는 상태로 피로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젊은 주민이 있어도 직장생활에 바쁘고, 어르신들은 요양원, 병원 등에 계셔 마을에 일할 사람이 없다.

우리 마을도 사업을 추진 할 때 48가구에 70여명이 계셨는데 현재는 28가구에 48명이 살고 계시고 그나마 6가구도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살고 있지 않은 사실상 빈집이다

마을 사업이 잘 안되 고민하던 어느 날 지금은 대학생이 된 딸이 초등학교 때 했던 말이 생각났다. 딸은 동네 근처 한 학년 학생수가 12명 정도인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에 있는 학생 수가 한 학년에 12명 정도 있는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마음이 안 맞는 친구 때문에 마음에 안 맞는 학생이 있는데 학년이 바뀌어도 똑같은 친구와의 문제가 계속 생겨 스트레스를 받아 원형탈모 증세가 생겨 병원을 다니기도 했다. 너무 심해져 읍내의 학교로 전학을 간 한달 후에 한말이 “엄마 이제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였다. 전 학교에서는 학급회의를 해도 00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 재미가 없었는데 이 학교는 반 친구들이 많아 회의도 회의답게 하고 의견도 존중해주고 친구들도 다양하게 놀 수 있어서 학교 다니는 게 좋다는 의미이다. 이 말을 다시 곱씹어 보니 결국은 기본적인 사람이 있어야 마을사업도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농촌이 초고령화 되면서 한집건너 한집이 빈집이고 경작지는 풀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마을만들기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마을은 마을의 유희지와 남는 농산물을 활용한 농가 맛 집과 소규모 가공을 하려했을 때 지역의 젊은이들을 고용하려해도 보험, 인건비, 전문성 등 문제가 있었고, 지역 주민에게 농산물 구입 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었다. 농가 맛 집이나 가공 식품은 모두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앞으로는 남는 것 같으나 뒤로는 적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농촌에 현실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장류나 두부 가공으로 물리게 되는데 된장, 간장 소비는 엄청 줄고 있으며, 고추장과 두부는 대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어 소비자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돼버렸다.

그럼 정말 농촌에 희망이 없는 걸까? 아니다. 사고의 전환... 생각을 바꾸면 답이 있다.

몇 년 전의 경험을 말하면서 글을 마치고 싶다. 가을에 김장하려고 배추와 무를 잔뜩 심었는데 김장하고도 남았으나 밭을 갈아 줄 사람이 없어 방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봄이 되자 배추와 무에서 노란 꽃이 피면서 마치 제주도 유채밭 처럼 되었다. 이 무렵에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쁘다고 들어와 사진 찍고, 농가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카페에 들러 커피도 마시고, 전시관 둘러보고, 마을 농산물도 사가는게 아닌가? 또 그 배추꽃으로 야채 샐러드와 물김치에도 넣으니 예쁘고 보기 좋은 반찬이 만들어지고 방문객들도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좋아했다.

이처럼 마을만들기는 순환되는 먹거리를 만들어야한다. 먹지 못하는 꽃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년생을 키워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주민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한다.